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감각처리특성과의 상관관계

박영주*, 송강식**

*인제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국립부곡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국문초록

목적 :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감각처리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대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문제음주와 감각처리특성 검사를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한국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와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문제음주와 감각처리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감각처리특성에서 문제음주의 유무에 따른 대상자 집단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문제음주 군에서 한국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점수와 감각예민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문제음주는 감각처리특성 중 감각예민과 낮은 상관성이 있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치료하기 위해 그들의 감각처리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평가방법과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감각처리특성, 대학생, 문제음주

I. 서론

성인의 음주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중 약 37~50% 정도는 위험한 수준이다(Johnston, O'alley, Bachman, & Schulenberg, 2013).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는 빈도, 양, 폭음의 경향 등에서 일반 성인에 비하여 매우 심각하다(Jung, 2006). 우리나라 대학생의 연간 음주율은 93.6%로 일반성인보다 높고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생의 연간 음주율보다 높다(Lee, Kim, Jung, Choi, & Ryou, 2011). 이러한 음주 실태는 지각이나 결석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 형사 사건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된다(Vik, Carrello, Tate, & Field, 2000). 또한 위험한 수준의 문제음주 패턴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질환, 질병, 사고,

장애뿐만 아니라(McQueen, Howe, Allan, & Mains, 2009) 감각 정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친다(Nguyen et al., 2013). 특히 만성 음주 중독은 고위 인지능력 중 시각적 자극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감각정보 처리기능에 장애가 발생한다(Modi et al., 2011).

문제음주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 개인특성 요인, 가족환경 요인 그리고 학교환경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기존에는 문제음주의 원인을 가족환경이나 학교환경과 같이 외적인 요인에서 찾았으나 최근에는 음주문제가 개인특성과 관련된 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인특성 요인에서 감각추구경향이 문제음주를 일으키는데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고(Jung, 2006)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oi & Kim,

교신저자: 박영주(rosey20@hanmail.net) || * 이 연구는 2015년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접수일: 2015.07.30

|| 심사일:(1차: 2015.08.12 / 2차: 2015.08.24)

|| 게재확정일: 2015.09.04

2012; Lee, Kim, Go, & Kim, 2003; Lee, Park, & Kim, 1996; Suh & Cho, 2011). 감각추구란 새로운 감각, 더 큰 자극을 취하려는 인간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Dunn(1997) 감각처리특성 중의 하나인 감각찾기와 비슷한 개념이다(Gancarz, Robble, Kausch, Lloyd, & Richards, 2012).

감각처리특성은 Dunn(1997)의 모델에 따라 신경학적 역치의 연속체와 행동학적 반응 연속체의 4분면으로 설명된다. 신경학적 역치가 높을 경우 역치와 일치하여 작용하면 등록저하(low registration)가 나타나고 역치에 반대로 작용하면 감각찾기(sensory seeking)가 나타난다. 신경학적 역치가 낮은 경우 역치에 따라 작용하면 감각예민(sensory sensitivity)이 나타나고 역치에 반대로 작용하면 감각회피(sensory avoiding)가 나타난다. 등록저하의 감각처리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은 환경에 대한 흥미가 낮거나 무관심하고 외부반응에 무디며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고, 감각예민의 감각처리특성이 보이는 사람은 산만하고 과잉행동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감각찾기의 감각처리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은 활동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며 침착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감각회피의 감각처리특성이 보이는 사람은 외부 환경 변화에 저항적인 경향을 보인다. 문제음주와 감각처리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감각처리영역에서 감각찾기에 대한 특성만을 연구하였을 뿐(Choi & Kim, 2012; Lee et al., 2003; Suh & Cho, 2011) 등록저하, 감각예민, 감각회피와 같은 전반적인 감각처리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대학생과 정상음주 대학생의 감각처리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음주와 감각처리특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문제음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각처리특성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남, 전남, 전북, 충청지역의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1~4학년, 총 162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에 대한 목적 및 시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난 후 본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220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회수된 설문지는 199부로 회수율은 90.5%이었다. 응답자 중 물질중독이나 비물질 관련 중독을 진단받았거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5명(2.5%)과 설문응답을 최소 1개 이상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표기한 32명(16.1%)을 제외한 총 162명(81.4%)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함기준

- (1) 대학생
- (2) 음주를 하는 자
- (3) 연구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2) 배제기준

- (1) 청소년 및 대학생이 아닌 성인
- (2) 물질이나 비물질 관련 중독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경험이 있는 자
- (3) 연구 참여에 거부한 자

2.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 방법으로 설문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인 특성 7문항, 한국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10문항,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60문항으로 총 7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배포 방식은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각 대학의 설문담당자에게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설문 담당자는 학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과 시행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연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기록 방식으로 작성하고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대상자

의 동의는 설명서를 제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고자 하였고, 연구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연구 참여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 의문점에 대해 연락처를 기재하여 원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설명하도록 하였다.

3. 연구 도구

1) 한국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 AUDIT-K)

대상자들의 알코올사용 문제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바탕으로 Lee, Lee, Lee, Choi와 Nam(2000)이 번안한 한국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음주의 양과 횟수를 첨가하여 폭음과 과음을 측정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문제음주 평가에 적합한 평가도구다(Lee et al., 2011). 이 척도는 위험음주 3문항, 의존음주 3문항, 유해음주 4문항으로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 당 최소 0점에서 최고 4점까지 부여된다. 남성의 경우 0~9점은 정상음주군, 10~19점은 위험 음주군, 20~40은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분류되고, 여성의 경우 0~5점은 정상음주군, 6~9점은 위험 음주군, 10~40점은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은 10점 이상, 여성은 6점 이상을 문제음주를 지닌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UDIT-K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835이다.

2)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 Adult Sensory Profile, AASP)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 Adult Sensory Profile)은 Dunn(1997)의 감각처리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감각처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Brown과 Dunn(2002)이 개발하였다.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도구로 맛/냄새 처리, 움직임 처리, 시각 처리, 촉각 처리, 활동 수준, 청각 처리에 대한 6가지 감각영역에 대한 감각처리를 평가한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에서 5점(항상 그렇게 반응한다)사

이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점수와 한다. 결과는 등록저하, 감각찾기, 감각예민, 감각회피와 같은 4개의 감각처리특성으로 나누어 합산되고 도출된 각 특성의 점수는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각 개인의 감각처리특성을 구분 짓는다. 본 연구에서는 Park과 Kim(2006)이 번안한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Cronbach's alpha는 0.64~0.76이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자료 분석은 SPSS WIN 22.0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한국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문제음주 유무에 따른 감각처리특성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문제음주와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상관관계, 문제음주군에서 감각처리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62명으로 남자 32명, 여자 130명이었고, 전체 평균연령은 21.53 ± 1.98 세였다. 학년은 1학년이 34명(21.0%), 2학년이 33명(20.4%), 3학년이 91명(56.2%) 그리고 4학년은 4명(2.5%)이었다. 전체대상자 중 음주문제군은 106명(65.4%)이었고 정상음주군은 56명(34.6%)이었다.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의 비율을 보면 여자의 문제음주비율(70.8%)이 남자의 문제음주비율(43.8%)보다 높았다(Table 1). AUDIT-K 점수의 전체 평균은 9.47 ± 6.27 점으로 문제음주군은 12.58 ± 5.41 점, 정상음주군은 3.59 ± 2.30 점이었고, 두 군 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Problem Drinking Group	Normal Drinking Group	Total
Number of Subjects		106(65.4)	56(34.6)	162(100)
Gender	male	14(43.8)	18(56.2)	32(19.8)
	female	92(70.8)	38(29.2)	130(80.2)
Age(year)		21.39±2.16 ^a	21.80±1.58 ^a	21.53±1.98 ^a
Grade	1	10(6.2)	24(14.8)	34(21.0)
	2	13(8.0)	20(12.3)	33(20.4)
	3	33(20.4)	58(35.8)	91(56.2)
	4	0(0.0)	4(2.5)	4(2.5)

M±SD^a: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AUDIT-K scores between groups

	Problem Drinking Group	Normal Drinking Group	<i>p</i>	Total
ADUDIT-Kscore	12.58±5.41	3.59±2.30	0.00 [*]	9.47±6.27

AUDIT-K: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 ^{*} p<.05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Sensory Processing Feature between Problem Drinking Group and Normal Drinking Group

		Problem Drinking Group	Normal Drinking Group	<i>t</i>
		M±SD	M±SD	
Quadent	Low Registration	29.32±7.41	29.20±7.41	.101
	Sensation Seeking	33.52±7.60	35.84±8.23	-1.789
	Sensory Sensitivity	33.49±8.55	32.83±8.30	.466
	Sensation Avoiding	32.09±8.21	32.80±7.78	-.532
Sensory	Taste/Smell Processing	18.89±4.69	19.08±4.15	-.272
	Movement Processing	17.53±5.04	16.71±3.99	1.047
	Visual Processing	19.90±5.00	20.20±5.60	-.349
	Touch Processing	26.92±7.35	28.29±7.80	-1.105
	Activity Level	21.54±5.28	22.68±5.11	-1.323
Auditory Processing		23.52±7.12	23.98±5.64	-.422

M±SD: Mean±Standard Deviation, ^{*} p<.05

2. 문제음주 유무에 따른 감각처리특성

문제음주 유무에 따른 감각처리특성(quadent)을 살펴본 결과 문제음주군이 정상음주군에 비하여 등록저하,

감각예민에서 평균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감각찾기(sensation seeking) 영역에서 문제음주군이 33.52±7.60점 정상음주군이 35.84±8.23점으로 두 군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

	Quadent	AUDIT-K
AASP	Low Registration	.136
	Sensation Seeking	-.061
	Sensory Sensitivity	.195*
	Sensation Avoiding	.148

AASP: Adolescent/ Adult Sensory Profile, AUDIT-K: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

* p<.05

Table 5. Correlation Among Factors of Sensory Processing Feature

	Taste/Smell Processing	Movement Processing	Visual Processing	Touch Processing	Activity Level	Auditory Processing
Sensory Sensitivity	.528**	.463**	.720**	.691**	.518**	.744**

M±SD: Mean±Standard Deviation

** p<.01, * p<.05

모두 ‘다른 사람과 유사한 반응’(42~58점)보다 낮은 ‘다른 사람보다 적은 반응’ 구간에 속하였다. 감각(sensory) 별 감각처리특성을 살펴본 결과 움직임처리에서 문제음주군의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3. 문제음주와 감각처리특성의 상관관계

문제음주와 감각처리특성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대상자에서 AUDIT-K의 총점과 감각예민(sensory sensitivity)은 r=.195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AUDIT-K의 총점과 등록저하(low registration), 감각찾기(sensation seeking), 감각회피(sensation avoiding)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 문제음주군에서 감각예민 영역의 요소 간의 상관관계

문제음주군에서 AUDIT-K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감각예민(Sensory Sensitivity)과 감각처리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감각예민은 맛/냄새 처리를 비롯한 모든 감각영역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IV. 고찰

대학생의 문제음주는 일반 성인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Jung, 2006).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문제음주군과 정상음주군으로 나누어 감각처리특성을 알아보고 문제음주와 감각처리특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162명 중 문제음주군은 총 106명으로 65. %로 선행연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연구가 진행된 시기차이 때문으로 여겨진다. 문제음주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한국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알코올중독 및 문제음주를 보이는 성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사용된다(Gajecski, Berman, Sinadinovic, Rosendahl, & Andersson, 2014; Jung, 2006). 그리고 감각처리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은 감각처리특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연구도구로 사용된다(Lee, & Nam, 2013; Park et al., 2012).

문제음주 유무에 따라 감각처리특성을 알아본 결과 문제음주군과 정상음주군과의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두 군 모두 감각찾기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적은 반응’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각처리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Choi, Kim, & Lee, 2010; Han, Chang, Han, & Chun, 2012; Kim, Choi, & Park,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에서 개발된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이 국내로 번안되면서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는 문화의 차이나 언어,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된다(Jung & Kim, 2011). 본 연구결과 문제음주와 감각처리특성과의 상관관계는 감각예민이 문제음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감각추구가 문제음주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각예민이 문제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Jung, 2006), 문제음주가 감각처리특성의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측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감각추구를 측정하는 평가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감각추구 척도를 Zuckerman, Born, Ncary, Mangelsdorf와 Brustman(1972)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문제음주와 감각예민이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각예민과 문제음주와의 관계를 알아본 첫 번째 시도라 선행연구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한국대학생의 특이한 성향과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감각처리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oi et al., 2010; Lee & Nam, 2013; Park et al., 2012). 그러나 물질중독의 대표적인 음주문제, 즉 알코올사용장애와 감각처리특성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15년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한국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가 신체적 기능장애에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로의 확대가 법적, 제도적으로 명시화된 해이다. 우리나라 정신장애 환자 중 문제음주와 관련된 환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작업치료사가 중재에 개입하는 경우는 OECD 가입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Kang & Kim, 2011). 그리고 문제음주를 발생시키는 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 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적 요인의 하나인 개인의 감각처리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음주자들의 감각처리특성과 문제음주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그들을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별, 학년에 따른 비율로 대상자를 모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상관관계 연구의 특성상 대상자의 거주지 분포의 요소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Jung & Kim, 2011)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기 용이한 지역의 대학을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설문담당자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의 특성 상 설문지를 작성하는 개인의 성향, 응답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지역별 비율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며 설문지 작성 시 감독을 실시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음주 유무에 따라 감각처리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감각처리특성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문제음주 유무에 따라 대학생의 감각처리특성이 두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문제음주군과 감각처리 특성 중 감각예민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제음주 대학생을 치료하는 치료사 및 기타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의 감각처리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들을 평가하고 중재하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문제음주를 지닌 대학생들의 감각처리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감각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성인정신과에서 알코올사용장애를 보이는 환자를 이해하고 중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rown, C., & Dunn, W. (2002). *The Adult Sensory Profile*. Sam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Choi, J. D., Kim, J. K., & Lee, T. Y. (2010).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s and persona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8*(1), 23–30.
- Choi, J. K., & Kim, Y. T. (2012). Impulsivity, sensation seeking, cognition and their relationships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8*(2), 137–146.
- Dunn, W. (1997). The impact of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on the daily lives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 conceptual model. *Infants Young Child, 9*(4), 23–35.
- Gajecski, M., Berman, A. H., Sinadinovic, K., Rosendahl, I., & Andersson, C. (2014). Mobile phone brief intervention applications for risky alcohol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Addiction Science and Clinical Practice, 9*(11), 1–12.
- Gancarz, A. M., Robble, M. A., Kausch, M. A., Lloyd, D. R., & Richards, J. B. (2012). Association between locomotor response to novelty and light reinforcement: Sensory reinforcement as a rodent model of sensation seeking. *Behavioural Brain Research, 230*(2), 380–388.
- Han, S. Y., Chang, K. Y., Han, M. Y., & Chun, S. C. (2012). Study of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Problem Behavior of Delinquent Juvenil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1), 15–28.
- Johnston, L. D., O'alley, P. M., Bachman, J. G., & Schulenberg, J. E. (2013). Monitoring the future national results on drug use: 2012 overview, key findings on adolescent drug use. Ann Arbo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 Jung, H. R., & Kim, K.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obsessive–compulsive symptom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9*(4), 69–77.
- Jung, W. C. (2006).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mpa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1), 347–372.
- Kang, D. H., & Kim, S. O. (2011).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service and the role of psych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9*(1), 15–27.
- Kim, J. K., Choi, J. D., & Park, S. Y. (2008). The relationship of sensory processing and child–earing attitudes for mothers of children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6*(1), 45–54.
- Lee, B. H., Park, S. H., & Kim, S. H. (1996). Alcohol dependency and sensation seeking tendenc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5*(1), 144–155.
- Lee, B. W., Lee, C. H., Lee, P. G., Choi, M. J., & Nam, G. G. (2000). Development of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 Validity and reli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4*(2), 83–92.
- Lee, H. P., Kim, J. S., Go, H. J., & Kim, K. J. (2003). Impulsivity and sensation–seeking of pathological gambling: Comparison with alcoholism.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2*(1), 89–95.
- Lee, J. G., Kim, J. S., Jung, J. G., Choi, T. K., & Ryou, Y. I. (2011). Usefulness of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in screening for problem drink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2*(1), 29–36.
- Lee, J. H., & Nam, T. G. (2013). The 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some university student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 2780–2787.
- McQueen, J., Howe, T. E., Allan, L., & Mains, D. (2009). Brief interventions for heavy alcohol users admitted to general hospital ward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3(8), CD005191.
- Modi, S., Bhattacharya, M., Kumar, P., Deshpande, S. N., Tripathi, R. P., & Khushu, S. (2011). Brain metabolite changes in alcoholism: Localized proton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study of the occipital lobe.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 79(1), 96–100.
- Nguyen, R. H., Gillen, C., Garbutt, J. C., Kampov-Polevoi, A., Holden, J. K., Francisco, E. M., et al. (2013). Centrally-mediated sensory information processing is impacted with increased alcohol consumption in college-aged individuals. *Brain Research*, 25(1492), 53–62.
- Park, C. H., Kim, K. H., Back, J. E., Kim, J. Y. O, K. H., Min, Y. J., et al. (2012). The correlation of sensory processing type, self-esteem and academic ability in th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0(2), 33–39.
- Park, M. H., & Kim, K. M. (2006). The necessity for adult's sensory processing evaluating tool and the introduction of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The Journal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4(1), 1–12.
- Suh, K. H., & Cho, E. H. (2011). Sensation seeking and alcohol expectancies factors associated with problem drinking and motivation for alcohol use. *The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2(1), 1–14.
- Vik, P. W., Carrello, P., Tate, S. R., & Field, C. (2000). Progression of consequences among heavy-drinki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4(2), 91–101.
- Zuckerman, M., Born, R. N., Ncary, R., Mangelsdorf, D., & Brustman, B. (1972). What is sensory seeker? Personality trait and correlates of the sensation seeking sc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 308–321.

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 in College Students

Park, Young-Ju*, M.S., O.T., Song, Gang-Sik**, M.Sc., O.T.

*Dept. of Rehabilit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Dep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of Bugok National Hospital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s in college students.

Methods : From April to June in 2015, mentally healthy 162 college students were completed the questionnaire for problem drinking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s. Both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nd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 were used as measurements for correlation.

Results : Depends on the existence of the problem drinking,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sensory processing features. In group of problem drinking, the result indicate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 ($r=.195$).

Conclusion : Problem drinking ha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ensory sensitivity. Therapists should understand the features of college students with problem drinking. It would be desirable to develop a proper evalu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se peopl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problem drinking, sensory processing feature